

[서울시NPO지원센터 지원 미트쉐어 모임]

우리의 이야기들 : 인도의 한 여성 활동가로부터 온 편지

2016년 7월 19일 (화) 저녁 7시, The Ful House
이야기 손님 : Nyamat Bindra (SEWA Bharat, India)



01 모임 배경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Nyamat 입니다. 그녀는 인도의 뉴델리에서 왔습니다. 그녀는 젠더 기반 폭력, 재생산과 여성 건강, 가난한 여성들의 일자리 문제 등 인도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여성 이슈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그를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액티비즘을 실천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들을 듣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와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차이들을 인식하고, 서로를 통해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의 공통점들을 발견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지역, 다른 환경, 다른 나라, 다른 사회 속에서 살고 있으며 수많은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와 우리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이 이 지구화 시대에서 결국 많은 연결점들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가자들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우리의 액션들을 한층 더 넓은 범위에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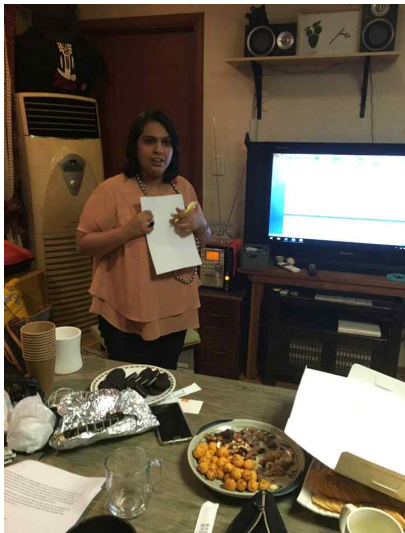
무더운 7월의 여름밤. 따뜻한 사람들이 모여 아시아, 개발도상국, 여성, 빈곤, 액티비즘을 주제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들을 기반으로 우리의 공익 활동들이 어떻게 지역과 국경, 언어를 초월하여 만날 수 있을지 고민하여 이 따뜻한 만남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02 모임 콘텐츠

1. 이야기 손님 소개

오늘의 이야기 손님은 인도의 뉴델리에서 활동하는 여성주의 연구 활동가 Nyamat Bindra이다. 델리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였으며, 인도의 여성단체인 SEWA Bharat에서 활동하였다. SEWA Bharat은 건축, 가사도우미, 행상 등 비공식 분야에서 노동하는 여성들의 권리 신장, 기초 생활 보장, 재정적 독립, 교육, 건강과 사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NGO이다. Nyamat은 인도를 포함한 개발도상국가의 여성 및 성 불평등 이슈에 관심이 많으며, 여성들의 권리 향상과 안전, 교육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동을 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여성의 성적, 재생산 건강과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와 관련하여, 유년기 청소년들을 위한 성교육 비디오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였다. 이번 한국 방문이 끝난 후, 네팔과 부탄 등에 기반을 두고 있는 아시아 페미니스트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 SEWA Bharat 웹사이트 : <http://sewabharat.org/about-us/>



2. Nyamat의 인도 여성 이야기

(1) 인도의 경제, 노동, 빈곤 그리고 여성

여성과 남성의 노동, 임금, 직업 격차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다만, 나라별로 그 차이가 날 뿐이다. 2015년 국제노동기구(ILO)의 통계에 따르면 여성의 노동 참여율 세계 평균은 50에서 70퍼센트 사이이다. 1995년에서 2013년까지의 여성 노동참여율을 비교해 보면 라틴 아메리카와 캐리비안 해안 인근의 국가, 남유럽에서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약 8퍼센트 증가한 것에 비하여, 남아시아, 동아시아에서는 오히려 줄어든 경향을 보였다. 특

히, 중국과 인도에서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상당히 감소하였다. 중국은 같은 기간 여성노동참여율이 72에서 64퍼센트로, 인도는 35에서 27퍼센트로 각각 감소하였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5년도 성 격차 지수(Gender Gap Index)에 따르면 경제 활동의 기회와 참여율 부문에서 인도는 145개국 중 139위를 차지하였다. 한편, 전 영역 평균에서 인도는 145개국 중 108위인 것을 고려했을 때 인도는 모든 영역에서 성 격차가 심각하지만, 그 중에서도 경제 활동과 노동 부문에서 인도 여성들의 지위가 세계 최하위인 것을 알 수 있다. 그 경제 활동에서의 성 격차는 2000년대 이후 들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강화됨에 따라 더욱 더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는 넓은 영토 안에 많은 민족, 종교, 지역, 계급이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다. 지역에 따라 경제의 차이는 크며, 특정 지역에 빈곤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다음의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hattisgarh, Jharkhand, Odisha 등의 지역에서는 농촌 빈곤이 심각하며, Bihar, UttarPradesh 등의 지역에서는 도시 빈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인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들

농촌 빈곤 (빈곤한 사람들의 비율: %)

Chattisgarh(44.61%), Jharkhand(40.84%), Bihar(34.06%), Odisha(35.69%)

도시 빈곤(빈곤한 사람들의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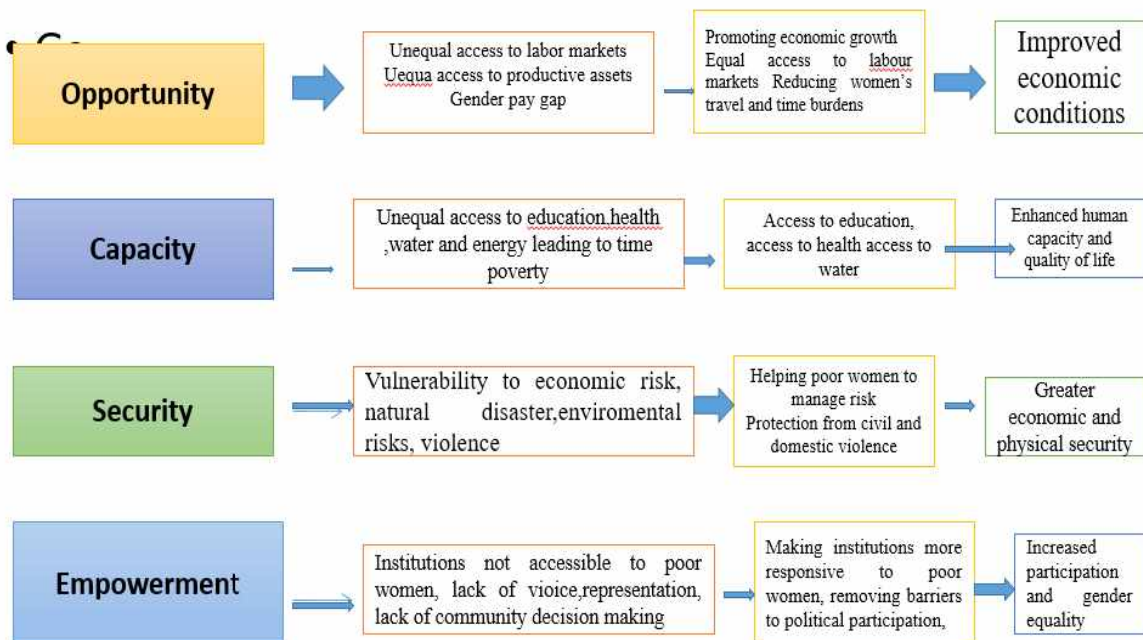
Bihar(31.23%), UttarPradesh(26.06%), Jharkhand(24.83%),
Chattisgarh(24.75%), Odisha(17.29%)

위와 같이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에 사는 여성들이 정말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인도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비공식 노동에 종사하는 으며, 조직된 영역(organized sector)에서도 비공식 노동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09-2010년과 2011-2012년 사이에 약 17백만 건이 증가하였다(국제노동기구, 2013). 비공식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안정된 보수를 받을 수 없고, 근무의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없 으며, 법으로 보장된 사회 복지에서 모두 제외된다. 이러한 불안정한 노동의 형태인 비공식 노동이 증가한다는 것은, 비공식 노동의 영역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노동 환경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결국 여성들이 안정된 노동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기회는 점점 더 요원해지고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Year	Rural		Urban	
	Male	Female	Male	Female
1999-00	201.98	106.75	78.87	19.25
2004-05	222.91	126.49	94.24	26.50
2009-10	235.7	106.2	102.7	24.2
2011-12	238.8	103.6	112.5	28.8

인도의 노동 인구 (시대별, 도시농촌별, 성별 통계, 단위 : 백만 명)

더 자세한 이야기는 강의 자료를 참조하길 바라며, 인도 여성의 노동과 경제 분야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제언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인도 여성의 노동 환경을 국가, NGO 차원에서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경제와 노동 분야에서 성인지적인(gender-sensitive)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도의 다양한 경제와 노동 분야에서 성별 통계를 확보해야 하며, 통계는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모두 세밀하게 생산 및 분석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도 경제, 빈곤, 노동의 문제에서 여성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과 빈곤과 젠더와 어떻게 깊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산시켜야 하며, 여성의 목소리를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전달하고 옹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외된 여성들을 대표할 수 있는 조직과 ngo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젠더와 빈곤과의 관련성 (세계은행, 2003)

(2) 인도의 여성 폭력

이번에는 인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젠더 기반 폭력(gender-based violence)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사실 여성을 둘러싼 폭력은 맥락에 따라 형태의 차이가 있을 뿐이며 그 근본 원인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비슷하다. 한국에서도 여성에 대한 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알고 있다. 인도에서도 젠더 기반 폭력은 정말 수많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인도에서 특별히 많이 일어나는 여성 폭력의 형태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지참금과 관련한 폭력과 죽음(dowry death)**이 있다. 인도에서는 여성이 결혼을 할 때 신부의 아버지로부터 귀중품, 보석, 돈 등의 지참금을 받아서 결혼하는 가정에 가져가는 풍습이 있다. 결혼을 할 때 이 지참금의 액수를 놓고 신랑 측과 신부 측 사이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대부분 이 분쟁은 신부에 대한 신랑, 신랑 가족의 폭력, 살인 혹은 신부의 자살이라는 비참한 결론으로 끝맺게 된다. 지참금과 관련한 분쟁이 신부에 대한 폭력, 학대와 살인, 신부의 자살이라는 비극으로 마무리 되는 것과 이러한 비극이 인도에서 계속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바로 이 지참금 분쟁이 '가정 내의 일'이라는 사소한 다툼으로만 프레임화되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사건의 명백한 본질이 계속 흐려지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참금 분쟁에 휘말린 여성들은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모멸감과 자신이 분쟁을 자초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하는 경우도 매우 빈번하다고 한다.

명예 살인(honor killing)이라는 용어는 모두 해외 토픽 뉴스에서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이다. 가족 혹은 친족의 명예를 훼손한 여성을 살인함으로써 그 명예를 지킨다는 것이며, 명예를 훼손한 여성이 저지른 '잘못'은 대부분 강간을 당하여 자신의 몸을 더럽혔다거나,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은 남성과 교제를 한다거나, 정략결혼을 거부한다는 것 등이다. 명예 살인은 인도의 북부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지역은 Punjab, Haryana, Bihar, Uttar-Pradesh, Rajasthan, Jharkhand, Himachal Pradesh 등이다. 며칠 전 파키스탄에서 성평등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며 sns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한 젊은 여성이 친오빠 손에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동생을 살인한 친오빠는 '동생이 자신의 몸이 드러나는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등 가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동생을 죽임으로써 가족의 명예를 지킬 수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명예 살인은 지역의 풍습, 가부장제, 가족주의, 종교 등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매우 근절되기 어려우며,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명예 살인'이라는 이름 아래 살해당하고 있으며 그 죽음은 가족, 친족, 이웃에 의해 묻히고 있다. 한편, 인도에는 마녀와 관련한 살인도 많다. 보통 남편을 잃은 미망인, 가난한 여성, 하층 계급의 여성들이 비논리적인 전설과 관습에 휘말려 '마녀'로 낙인찍히고 살해당한다.

많은 국가에서도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여아 낙태 살인(female infanticide)도 인도의 대표적이 젠더 기반 폭력 중 하나이다. 인도에서도 딸들이 태어나면 가족에게 사회적, 경제적 부담으로만 여겨졌기 때문에(예: 신부 지참금), 여아를 임신한 것을 알고 난 후 낙태가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다. 인도에서 현재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 병원에서 태아 감별이 불법이지만, 대부분의 병원에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태아의 성별을 쉽게 알려준다고 한다. 인도의 병원에서 태아 감별과 낙태가 어려운 경우, 인도의 부유층들은 두바이 등 가까운 다른 나라로 가서 쉽게

태아 감별과 낙태를 하고 온다고 한다. 즉, 태아 감별과 낙태를 법적으로 금지한다고 해서 여아 낙태가 근절될 수는 없으며, 장기적으로 성평등 가치의 확산과 여아 낙태가 젠더 기반 폭력의 한 형태라는 인식의 확산이 함께 되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2012년 인도의 버스 집단 강간 사건에 분노한 여성들

강간(rape)에 대해서는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는 범죄이기 때문에 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다. 다만 강간과 관련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언급하고자 한다. 모두들 전 세계를 분노와 충격으로 경악케 하였던 2012년 인도의 델리 지역에서 일어난 집단 강간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이다. 2012년 12월 인도 델리에서 한 여대생이 남자친구와 함께 시내버스를 탔다가 그 안에서 6명의 남성에게 집단 강간을 당하였고 그 때의 잔인한 폭력으로 인하여 며칠 뒤 숨을 거두었다. 이 사건에 분노한 사람들이 인도 전역, 그리고 세계에서 여성 폭력에 대항한 집단적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 시간이 지나자 이 목소리는 수그러들었으며, 인도의 여성들은 현재도 강간을 비롯한 성폭력의 두려움에 떨며 거리를 걸어야 한다.

부부 강간(Marital rape)도 인도에서 너무도 빈번한 젠더 폭력의 한 형태이나, '결혼한 여성의 성은 남편의 것'이라는 가부장적 가치관 때문에 표면화되지 않고 있다. 인도에서는 부부 강간이 범죄로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남성들은 면죄부를 받고 있으며 부부 강간과 가정 폭력, 아내 살인 등 다른 여성 범죄와도 매우 긴밀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꼭 부부 강간을 범죄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처벌과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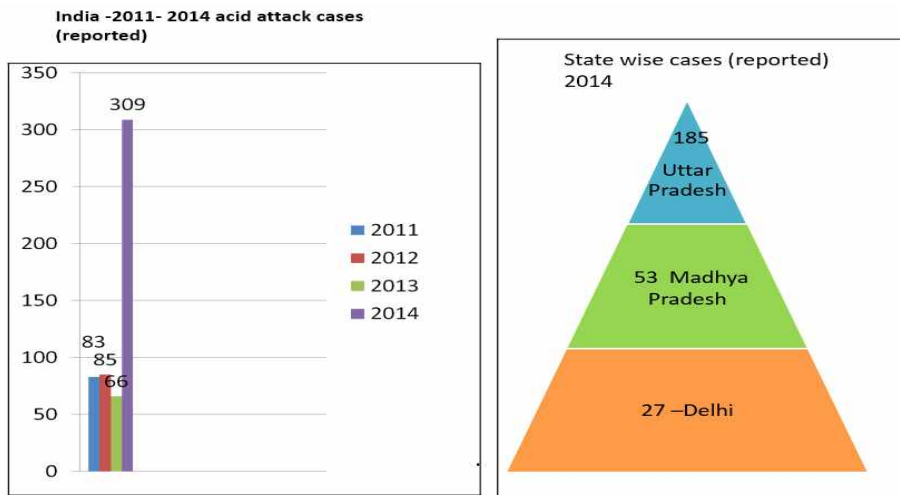
(3) 인도의 염산 테러에 대한 연구

오늘 가장 중점을 두고 소개하고 싶은 부분이 인도의 '염산 테러'에 대한 나의 연구와 활동이다. 나는 지난 2015년 인도 전역에서 25명의 염산 테러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 생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지금까지 전개해 오고 있다.

염산 테러(acid violence or acid attack)는 개인에게 심각한 손상, 불구, 고문, 살해를 위한 목적으로 염산을 쏟거나 던지는 등 염산을 이용한 '계획된' 폭력을 말한다. 염산 테러가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국가는 방글라데시, 인도, 캄보디아이며, 이 세 국가는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하 성 격차 지수(2013년 통계)에서 각각 75위, 101위, 104위를 차지한 바가 있다. (참고로 한국은 2015년 기준 145개국 중 115위이다.) 염산 테러의 피해자는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으며, 방글라데시에서는 염산 테러를 '젠더 폭력(gender crime)'으로 규정하고 있다. 남성 가해자

들이 밝힌 여성 대상 염산 테러의 원인은 성관계나 결혼의 거부에 대한 복수와 응징이 대부분이다. 물론 남성 피해자들도 존재하는데, 이들 대부분은 재산 혹은 사업 관련 경제 분쟁에서 기인한 폭력의 피해인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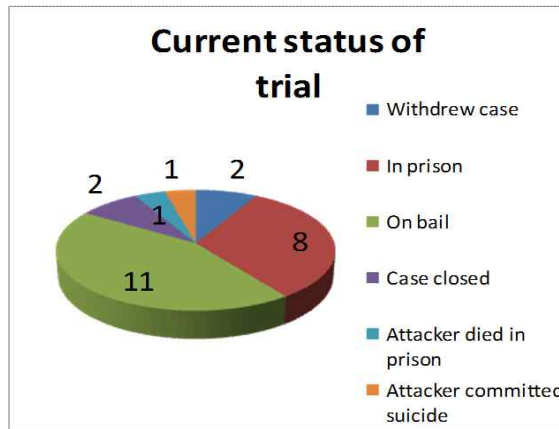
인도의 현행법상 염산 테러 가해자들에게는 최소 10년 징역의 형벌이 내려진다. 염산 테러 가해자들은 상대방을 철저히 파괴하면서도 살인과 같은 중대 범죄에 내려지는 무거운 형벌을 피하기 위해 염산 테러를 저지른다고 한다.



(왼쪽) 인도의 염산 테러 발생 건수(2011-2014년)
 (오른쪽) 인도 지역별 염산 테러 발생 건수 (2014년)

위의 그래프와 같이 인도의 염산 테러 발생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2014년에는 매우 증가한 경향을 보인다. 또한 인도의 북부에 위치한 Uttar Pradesh 지역에서 현저히 많은 염산 테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내가 인터뷰한 25명의 염산 테러 피해자들에 대한 자세한 통계는 나의 발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눈여겨보아야 할 통계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밑의 자료는 자신의 사건에 대한 가해자들이 법적 처벌 현황이다. 25명의 가해자 중 11명이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으며, 2명은 사건 자체가 종결되어 처벌을 받지 않았고, 2명은 사건을 철회하였다. 단 8명만이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고 한다. 인터뷰한 25명의 피해자들이 평균 10번의 외과 수술을 거칠 정도로 큰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였고 가족의 보살핌에 의지해서 치유 과정을 겪고 있는 사실에 비한다면 매우 어처구니없는 현실이다.



염산 테러 사건에 대한 가해자 법적 처벌 현황 (Nyamat의 인터뷰 대상자 25명 대상)

인도에서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염산 테러의 이면에는 콜라보다도 값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염산,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염산 테러 피해자들에 대한 현저히 부족한 심적, 물리적 치료 지원책, '남성의 결혼 희망, 성적 관계를 여성은 감히 거절할 수 없다'는 여성혐오와 가부장제 가치관 등의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카페 'SHEROES' 와 설립자 여성들

그래도 희망적인 이야기로 오늘의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타지마할로 유명한 아그라 지역에 'SHEROES' 라는 카페가 있다. 5명의 염산 테러 피해자들이 설립하였으며, 이 곳 카페의 수입은 인도 전역의 염산 테러 피해자들의 의료, 법적 지원비로 사용된다고 한다. 염산 테러로 얼굴과 신체에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사회에 혐오감을 주는 외모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항하여 직접 사업의 주체로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인도의 많은 페미니즘 단체들이 염산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많은 에드보커시 활동과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5월 강남역 인근의 상가 화장실에서 한 젊은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살해된 끔찍한 사건을 알고 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과 살인은 맥락과 지역에 따라 그 표면적 형태만 다를 뿐 모두 유사한 근본 원인과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국가, 지역을 막론하고 여성들이 폭력과 살인, 빈곤과 불안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연대하고 싶다.

